

김영록 지사 '피해지원·재발방지 특별법 제정' 건의

최 대행·우 의장에 수습대책 요청
공동모금회 성금, 유가족 지원도
시신 보형물 복원·백서 발간 필요
"의료·심리·법률 등 지원에 만전"

전남도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, 피해
지원·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.

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무안국제공
항 분향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
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제
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대책을 강력히
건의했다.

주요 건의사항은 △피해지원 및 재발방
지 특별법 제정 △추모공원 조성 △유가
족 긴급 생활비 지원 △유언비어·모욕성
게시글 강력 단속 등이다.

김 지사는 배상·보상 등 지원방안 마
련,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모시설 건립 등
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.

이어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치유 등을
위한 추모공원 조성과 무엇보다도 유가족
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의 신
속한 지원을 요청했다.

또한 사고 충격으로 힘든 유가족에게
더 이상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언비어
및 모욕성 게시글을 강력 단속해 줄 것을
건의했다.

이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"이러한
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



최상목(오른쪽)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안내로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.

다하고, 무안국제공항이 한 단계 업그레
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"고 답했다.

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
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사회복지
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유가족 생계비를 지
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김 지사는 "전남도는 유가족 1대1 전담
반을 운영해 아이 돌봄, 장례 절차 등을 지
원하고, 의사회·한의사회·자원봉사자 등

의 도움을 받아 의료·심리·법률 상담과 식
사·물품·숙소 지원 등 유가족들의 불편함
이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맞춤형
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그러면서 "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로 생
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유가족이 있으므로,
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이 진행되
는 중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이뤄지도록
검토해주시기 바란다"고 요청했다.

또한 유가족 요청에 따라 훼손이 심한
시신 보형물 복원과 사고 수습 절차를 기
록한 백서 발간 등도 건의했다.

김 지사는 이어진 전남도 대책회의에서
"유가족과 도민, 국민의 슬픔과 비통이 헤
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 새해가 왔지만,
아직 새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무
겁다"며 "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진정한 새
해가 될 것이므로, 비상한 각오로 각자의

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"
고 말했다

또한 "공항 관리는 국토부 소관이지만,
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죄인 같다
는 생각이다. 겸손하고, 반성하고, 성찰하
는 마음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치유하
는데 최선을 다해달라"고 당부했다.

앞서 전남도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
일 '사고 희생자 애도기간'을 4일까지 일
주일 동안으로 지정하고 시급하지 않은
행사의 연기 등을 권고했다.

전남도는 무안공항 합동분향소 등 지역
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
상시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
는 한편,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
도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
있다. 또 피해자 가족과 도민 등의 심리회
복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심리상담
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
있다.

24시간 심리상담은 1577-0199로 전화
하면 가능하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'터치
마인드'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정신건
강 자가진단 및 상담·치료기관도 안내받
을 수 있다.

전남도는 여러 경로로 정서적·심리적
어려움이 확인된 도민에게 '전국민 마음
투자 지원사업'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바우처 8회분
을 제공할 방침이다. 오지현 기자

"음성기록장치 음성파일 전환 완료... 2시간 분량"

국토부 "조종사 대화·교신 내용"
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특별조사
"사고 항공기종, 운항정지 가능"

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
객기 7C2216편 참사 현장에서 발견한 블
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(CVR) 자료의
음성파일 전환이 끝나 본격적인 사고 분
석에 들어간다.

주중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2
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
고 수습본부 브리핑에서 "항공철도사고조사

위원회(사조위)는 CVR에서 추출한 자
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
금일 오전에 완료해 조사에 활용할 예정"
이라고 밝혔다.

CVR은 조종사의 대화 및 관제탑과의
교신 내용, 기체 작동음 등을 기록하는 장
치로, 최장 2시간 용량이 저장된다. 국토
부는 전체 2시간 분량의 기록을 확보했
다고 밝혔다.

다만 블랙박스 중 커넥터 분실로 국내
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능한 비행기록장치
(FDR)는 미국 워싱턴 교통안전위원회

(NTSB) 본부로 보내 분석할 예정이다.
FDR 제조사도 조사에 참여한다.

주 실장은 "파손된 FDR은 NTSB와 이
송 일정이 협의되는 즉시, 사조위측 조사
관을 파견해 자료분석에 착수할 계획"이
라고 전했다.

한미 합동조사팀은 무안공항 내 임시분
부를 마련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.
전날부터 기체, 엔진 등 자해 상태와 조류
충돌(버드스트라이크) 관련 흔적에 대한
육안조사가 시작됐다.

사조위는 FDR 기록이 나올 때까지

CVR 기록과 관제통신기록, 관제 등 면담
기록, 기내탑재용 항공일지 등 확보한 자
료를 토대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펼
치게 된다.

국토부는 또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
받는 로컬라이저(방위각시설) 콘크리트
둔덕 논란과 관련해 이날부터 오는 8일까
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
행 중이다. 특별점검 대상은 공항 활주로
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, 높이, 재
질 등이다.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고 항공
기종을 특별점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안
전 문제가 발견되면 운항정지 제재를 할
수 있다고 밝혔다.

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"보잉
737-800 기종을 가진 전 항공사를 대상

으로 여러 안전 확인 필요 사항을 추가해
서 함께 다 보고 있다"며 "중대 사안에 대
해선 항공안전감독관이 긴급 운항정지를
포함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"고
밝혔다.

보잉 737-800은 해당 기종은 국내 저
비용항공사(LCC)가 주로 사용하는 항공
기로, 제주항공이 39대, 티웨이항공 27
대, 진에어 19대, 이스타항공 10대, 에어
인천 4대, 대한항공 2대 등 총 101대가 운
항 중이다.

국토부는 이들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
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엔진, 랜딩기어
등 주요계통 정비이력, 운항·정비기록 실
태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고 있
다. 뉴시스

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

새집증후군 완벽차단!!

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!!

▶ 용도

어린이집·유치원·한옥 내·외부·방바닥·전원주택·경로당·아파트·펜션·찜질방·카페·홈
외벽·목재·양어장·물탱크·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
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
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
*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!!

▶ 친환경성

천연황토, 게르마늄, 솔잎, 편백나무, 약쑥, 참숯,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.

▶ 색도조절제 화이트(600g) :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



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!!

▲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▲

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.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.

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.
(제외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)



드림코리아
DREAM KOREA

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(무담보, 무보증)
문의 : 080-362-7788
www.dreamkorea.biz